

인비닷컴의 사회공헌 활동

“아이들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설레는 새학기! 빈곤가정 아이들의 어깨를 짊 펴주세요!"



문서서식 포털 비즈폼(www.bizforms.co.kr)의 메인 화면 한 곳에 자리잡은 '위풍당당 신나는 등굣길'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는 동생들이 구김살 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육남매의 염원과 누전으로 집이 불타버린 은지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비즈폼(www.bizforms.co.kr)'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기업, (주)인비닷컴(대표 이기용, www.inbee.com). 지난 2005년 '꿈자라기 우리학교'에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국내, 해외, 북한에서 빈곤아동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구호 NGO 굿네이버스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후원금 전달을 계기로 작년부터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든든한 정기

후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인비닷컴은 '병원 밖 세상을 그리며...'를 시작으로 비즈폼과 함께하는 2006 따뜻한 겨울맞이 캠페인 '소원나누기 사랑더하기'로 지혜, 대현이, 영우의 사연을 세상에 알렸다. 또한 전세계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매월 소액약정 기부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비즈폼과 함께하는 전국민 기부 프로젝트 '100원의 기적'>으로 300만 비즈폼 회원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현재 진행 중인 '위풍당당 신나는 등굣길'은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당당하고 신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복과 학습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정기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간단한 입력 절차 후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인비닷컴 이기용 대표는 "부산의 경기 침체는 몸으로 느껴질 만큼 얼어 붙어 있지만 인비닷컴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인 만큼 지난 결식 아동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중반기 고아원, 결식아동 봉사활동 등 향토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직원들간의 교류를 위해 분기별로 20km 단축 마라톤을 즐기며, 사내 독서감상문대회를 통해 건전한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인비닷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1위 기업이 아닌 사회 공헌활동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하는 인비닷컴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